http://dx.doi.org/10.35431/MINJOK.80.7

다언어 사회의 ‘언어경관’과 국어교육적 내용화

김 규 훈 (대구대학교)
(rbgns81@naver.com)

국문요약

이 연구는 다언어 사회의 특징적 언어 현상 가운데 하나인 언어 경관(linguistic landscape)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 경관의 국어교육적 내용화를 꾀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언어 경관의 개념적 요소를 문헌 연구로써 추출하고, 국어교육적 관련성을 가늠하여 교육과정 연구의 방법으로 언어 경관을 적용한 국어교육 내용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 연구는 언어 경관이 국어교육으로 적용되는 방향을 ‘국어교육적 활용으로서의 언어 경관’과 ‘국어교육 내용으로서의 언어 경관’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국어교육 내용으로서의 언어 경관에 집중하여 ‘언어 경관의 복합양식성’과 ‘언어 경관의 타당성’의 내용 범주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내용 요소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언어 양식과 언어 문화의 다양성 시대에 국어교육의 실천적 교육 내용을 언어 경관을 통해 구상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 언어 경관, 공공 언어, 다언어사용, 실제적 국어 자료, 복합양식 텍스트, 언어의 타당성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 연구는 언어 경관(linguistic landscape) 이론을 고찰하고 언어 경관과 관련된 국어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언어 사회로 지칭되는 현대 사회의 실제적 언어 현상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는 언어 경관의 개념 요소를 바탕으로, 국어교육에서 다양한 문화와 양식의 언어를 수용하는 과정에 관한 국어교육의 내용 요소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언어 경관 이론을 통해 실제적 국어교육의 실천적 지평을 확장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언어 경관은 특정 지역, 특히 도심에 존재하는 공공성을 지닌 일련의 언어 현상을 지칭한다(Landry & Bourhis 1997, 23). 곧 거리의 교통 표지판 및 안내판, 건물에 게시된 문구, 상점의 간판이나 광고 포스터 등 특정 지역의 언어적 풍경을 형성하는 대상을 언어 경관이라고 한다. 이러한 언어 경관은 가시성(visibility)과 현저성(salience)을 특징으로 지니며, 이들 두 특징은 각기 정보적(informational) 기능과 상징적(symbolic) 기능을 지니고 있다(Landry & Bourhis 1997, 25-28).[1)]

여기서 '정보적 기능'은 특정 지역의 거주민에 의해 구성된 경관의 언어가 보이는 다양한 모습과 특성을 말한다(Landry & Bourthis 1997, 25). '상징적 기능'은 특정 지역에서 현저한 우위를 보이는 언어 양상과 같이 다언어 간의 갈등이나 공존과 같은 언어의 생태적 특성을 의미한다(Landry & Bourthis 1997, 28). 언어 경관의 정보적 기능과 상징적 기능은 언어 경관에 대한 연구 양상을 반영하기도 하는데,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언어 충돌이나 갈등에서부터 다언어 사회의 언어 공존과 상생 그리고 미래 언어의 모습까지 포섭하는 연구가 언어 경관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신동일 외(2017)에서 명시한 '횡단언어주의(translingualism)'의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횡단언어주의는 "언어, 정체성, 문화 사이를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로지르고 관통하면서 이들의 '단일성'을 끊임없이 교란하는 언어의 양상에 주목하고, 또 그 양상을 최대한 드러내 주는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신동

1) 언어 경관 이론은 경험적, 실증적 연구 방법론을 바탕으로 민족지학의 연구 분야에 해당한다. 이에 언어 경관의 정보적, 상징적 기능은 단순히 도심 공공 및 상업 언어의 기능적 특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언어 표현이 내포한 힘의 관계나 위상과 관련이 깊다. 이에 대하여 Landry & Bourhis(1997, 23)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It is proposed that the linguistic landscape may serve important informational and symbolic functions as a marker of the relative power and status of the linguistic communities inhabiting the territory." (연구자 밑줄)

일 외 2017, 33). 언어 경관은 횡단언어주의가 발현되는 하나의 모습으로서,[2] 언어 경관에 대한 연구는 필연적으로 복잡화된 현대 사회의 다언어 현상을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특히 언어 공존과 상생에 대한 논의를 파생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어교육에서는 '국어'를 연구의 대상이자 교육의 질료로 삼는다는 점에서, 변화된 시대의 국어 모습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변화된 시대의 언어 사용 가운데 국어교육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지는 다문화 국어교육 및 복합양식 텍스트의 소통 등의 교육적 테제는 다언어 사회의 언어 경관 현상과 상당한 부분에서 교집합을 형성하고 있다. 가령 음식점 간판에 국어와 일본어가 혼용되어서 사용된 모습이나, SNS에서 소통되는 다국적 언어의 혼합어와 같은 독특한 형태는 언어 경관의 관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인을 위한 안내 문구에 은연중에 숨어든 이념적 차이를 유발하는 언어 표현은 모국어 학습자의 다문화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중요한 국어교육적 문제이다. 물론 국어교육에서 다문화 언어 사용이나 복합양식 텍스트에 대한 연구가 각기 수행되어 오고 있지만, 이들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향후 모국어 학습자가 지녀야 할 언어관이나 언어 의식 및 언어에 대한 태도의 교육 내용을 섭렵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언어 경관은 이러한 측면에서 국어교육의 관련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훌륭한 언어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3] 조태린(2015, 40)에서 강조하였듯이, 언어 경관은 다언어 사용을 포함하여 언어 인권과 관련 언어 정책의 문제에 대응하는 논의로 확장될 것이며, 더 나아가 언어 교육의 울타리에서도 활발히 논의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연구는 언어 경관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국어교육의 내용으로 구성하는

---

2) 이와 관련하여 신동일 외(2017, 53-54)는 도시의 언어 경관을 뜻하는 '메트로링구얼(metrolingual)'이라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상술하고 있다. "다른 민족이지만 도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며 가치관, 음식, 음악, 패션, 업무, 기타 취미 활동 등을 공유하고 친밀감을 쌓는 도시민족성의 태도는 언어 사용 역시 국가나 민족에 기반을 둔 가치 체계를 벗어나게 하며 오히려 미적이고 창발적인 생활양식에 독특한 의미를 부여한다. (…) 도시 공간인 식당, 시장, 백화점, 지하철, 기타 공공장소 등의 일상적 공간에서 메트로링구얼은 전략적이고 선택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학습하면서 언어를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구축된 고정된 체계로 보지 않는다."

3) 이 논문의 선행연구 검토와 관련하여, 국어교육에서 언어 경관을 직접적으로 다룬 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지현숙(2019)은 다중언어 시대 한국의 횡단언어 경관을 고찰하여 본고의 연구 주제와 일치한다. 지현숙(2019, 420)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 사회의 의사소통 현장에서 발견되는 한국어와 다양한 한국어 변이형, 한국어가 아닌 새로운 언어들의 생태적 공존을 모색하고 아직까지도 언어 정책이나 언중에 강하게 작동·작용하고 있는 단일언어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논점과 본고는 궤를 같이 한다. 이 논문은 지현숙(2019)에서 제시한 방향성과 횡단언어 경관 분석의 사례를 참고삼아, 국어교육의 내용 층위를 중심으로 언어 경관의 이론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작업이다. 이를 위해 먼저 언어 경관의 개념을 살피고 특히 다언어사용(multilingualism) 현상으로서 언어 경관이 지닌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국어교육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언어 경관과 관련된 성취기준을 검토할 것이다. 끝으로 언어 경관을 적용한 국어교육의 내용을 그 범주와 범주별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제시해 볼 것이다.

Ⅱ. 언어 경관의 개념과 다언어사용 현상

언어 경관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활발해지고 있는데, 대체로 언어 경관의 지리적 분류인 특정 도시나 공간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4] 이러한 경향은 언어 경관이 인문지리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 기인한다. 언어 경관의 개념이 특정 지역, 특히 도시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지역 분화적으로 논의된 언어 경관은 국어교육의 관점으로 볼 때, 지역 방언이나 국어 규범에 관한 교육 내용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언어 경관을 개념적 요소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특히 언어 정책 및 교육적 활용으로 접근한 논의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태린(2015)는 한국 언어 경관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밝히고, 언어 경관의 개념을 토대로 향후 언어 경관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양민호(2020)은 언어 경관 연구가 역사사회언어학적 방법을 바탕으로 통시적 논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언어 경관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같이 특정 지역이나 공간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언어 경관 연구의 지평이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언어 경관이라는 연구 담론을 국어교육이라는 학문 울타리에 적용하는 방향성을 이들 연구를 통해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 가운데, 조태린(2015)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적 적용을 위한 언어 경관의 개념을 세분화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조태린(2015)에서 언어 경관의 주창 논의인 Landry & Bourthis(1997)을 바탕으로, 언어 경관의 개념 요소를 분석적으로 살피고 있기 때문이다.

---

4) 언어 경관에 대한 기존 논의에는 대학 주변의 음식점 간판을 대상으로 한 언어 경관 연구(이자호, 2019), 제주 지역의 언어 경관 특성(강혜선, 2019), 간판과 게시판의 화용 연구(김정헌, 2021), 해양관광도시의 도로 표지 언어 경관(양민호·김준환, 2021a),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언어 경관 연구(양민호·김준환, 2021b) 등이 있다. 이처럼 최근에 논의된 다수 언어 경관 논의는 특정 지역이나 공간(가상 공간 포함)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언어 경관 개념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 언어 정책과 더불어 언어 교육의 울타리에 해당하는 국어교육에서 언어 경관과의 접점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 연구는 조태린(2015, 29-30)에 제시된 언어 경관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여기에 그간의 언어 경관에 대한 논의를 섭렵하여 언어 경관의 국어교육적 적용 방향을 고민해 보기로 한다.

- 언어 경관은 민간의 공간이 아닌 공공의 공간을 전제로 한다.
- 언어 경관은 구어보다 문어에 초점을 맞춘다.
- 언어 경관은 다언어사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위의 개념 요소를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언어 경관이 공공의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닌 경관의 개념으로 언어가 지닌 공공성을 뜻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가령 길거리에 있는 개인 상점의 간판은 분명 사적 소유이지만, 간판은 도시의 경관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이에 간판 언어는 중요한 언어 경관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국어원(2006, 14)에서는 간판, 현수막, 안내판, 표지판, 벽보 등과 같은 옥외 광고와 옥외 간판 및 옥외 사인을 언어 경관의 주요 유형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언어 경관은 도시를 비롯한 특정한 지역의 경관을 구성하는 모든 언어 표현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5)]

이때 특정한 지역은 반드시 물리적인 공간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데, 이는 간판이나 안내 문구 등과 같은 공공성을 띤 언어 표현들이 가상 공간에서도 빈번히 등장하기 때문이다. 양민호·김준환(2021b, 489)에서는 주요 시도 지자체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사용된 다언어 현상을 언어 경관 연구로써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언어 경관 연구의 확장은 가상 공간이 실재 공간보다 더 중요하고 빈번한 언어 사용의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둘째, 언어 경관이 문어에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에 대하여 조태린(2015, 29)는 '눈에 보이는 언어 경관, 즉 시각 경관(visual landscape)'을 분석 대상으로 둔다고 언급하였다.

5) 길을 걷거나 운전을 하면서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우리가 접하는 특정 장소의 수많은 표지들은 각각의 특징과 상징성이 있다. 그것은 차들을 위한 교통 표지판, 보행자 표지판, 상업광고, 정부정책안내문, 거리이름, 낙서, 그리고 주의표지 등등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공공장소에 문자언어의 형태로 게시된 언어들을 우리는 언어경관이라고 부른다(강혜선 2019, 1-2).

사실 대다수의 언어 경관 논의가 시각 경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언어적 차원에서는 문자 언어를 언어 경관의 주요 논제로 상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민호·김준환(2021a, 77)에서는 최근 언어 경관 연구는 화살표 등과 같은 기호와 화장실 마크와 같은 픽토그램(pictogram)을 포함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문자 언어는 넓은 의미에서 각국의 문자 체계에 기호와 픽토그램을 더한 형태를 포괄한다고 한 바 있다. 이처럼 언어 경관이 문어에 초점을 둔다는 점은 시각 경관을 주요 대상으로 하되, 그 대상은 협의가 아닌 광의의 문자 언어를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언어 경관이 오직 시각 경관의 분석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태린(2015, 29)에서는 언어 경관은 귀로 듣는 음성 경관(soundscape)이나 만지거나 느낌으로 의사전달을 하는 촉각 경관(tactual landscape)을 포함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다.[6] 이때 촉각 경관은 양민호·김준환(2021a, 77)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을 위한 문자 표기를 가리키므로 광의의 문자 언어에 수렴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음성 경관이 언어 경관 연구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인데, 이는 앞서 '첫째'에서 언급하였듯이 최근 실재의 공간을 넘어서 가상 공간으로 확장되었다는 점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면 복합양식 텍스트는 그 자체로서 언어 경관의 발현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언어 경관은 언어의 양식(mode)에 대한 변화를 바탕으로, '문자 언어', '시각 언어', '음성 언어'로 구분하는 편이 더 적합하다.

셋째, 언어 경관이 다언어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언어의 세계화에 따른 필연적 현상이다. 다언어사용은 좁게는 한 국가 내의 표준어와 지역 방언 및 사회 방언의 혼용을 가리키고, 넓게는 특정 지역 내에서 해당 국가의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언어 혼용을 포괄한다. 언어 경관은 다언어사용의 넓은 의미와 적극 관련되는데, 이는 '언어적 접촉(linguistic contact)' 이론으로 설명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자호(2019, 136)은 언어 경관의 연구가 다른 언어와의 접촉에 의한 표기의 문제를 다루는 경향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 표기의 문제는 위 '둘째'에서 언급한 시각 경관과 관련된 논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접촉의 언어 문제는 비단 표기의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신동일 외(2017, 163)은 언어 경관이 눈으로 보이는 언어 표기부터 어떤 언어가 선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언어 경관에 숨어 있는 이데올로기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6) 음성 경관은 귀에 들리는 모든 음성 언어(방송안내, 관광지 안내, 박물관 해설 등)가 그 대상이며 해당 국가의 언어 및 방언이 여기에 속한다. 촉각 경관은 손발로 만져볼 수 있는 모든 요소,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을 위한 문자 표기인 점자, 보도블록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양민호·김준환 2021a, 77).

일반적으로 권력이 있는 집단이나 개인은 특정 언어에 대한 중요성, 권력, 우월성, 과학성 등의 가치를 눈에 띄는 방식으로, 좀 더 상징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부과된 이데올로기의 지배에 반항하며 자신들의 무시된 정체성을 또 다른 언어적 표지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언어 이데올로기의 전쟁터가 언어 경관임을 지적한 바 있다(신동일 외 2017, 164). 이렇게 보면 다언어사용과 관련된 언어 경관은 그저 다양한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언어 간의 갈등이나 권력 관계를 통해 해당 지역의 언어가 형성하는 사회적 이념성에 대한 인식까지 나아간다고 볼 수 있다.[7)]

특히 언어 간의 갈등이나 권력 관계는 언어의 생태학(ecology of language) 연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 Fill(1993; 박육현 역 1999, 27)는 언어의 생태학에 대하여 Haugen(1972, 325)의 정의를 빌려, "특정 언어와 그의 환경과의 상호 관계에 대한 연구"라고 소개하면서, '다중 언어 문제, 표준어와 방언의 위계, 다수 언어와 소수 언어의 갈등 및 소수 언어의 소멸' 등을 주요 연구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생물의 생태계가 일련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균형을 유지하듯이, 언어의 생태계 또한 역학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언어의 생태학이 지닌 기본 전제이다. 이렇게 볼 때, 언어 경관은 언어의 생태학이 지닌 언어 관계와 갈등에 관한 연구 논제를 포괄하며, 특히 세계화 시대 언어 공용의 현상이 특정 공간이나 지역의 이념에 따라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도심 번화가에서 쉽게 발견되는 외국어와 한국어의 병행 표기 현상, 가상 공간에서 국적 불명의 혼재된 용어가 범람하는 현상 등은 해당 현상의 언어적 분석과 더불어, 언어적 분석을 통해 지역, 사회, 문화, 계층의 언어 인식(language awareness) 양상이 언어 경관 연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8)]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언어 경관은 '경관의 공공성', '문어 중심', '다언어사용 현상'이라는 개념 요소를 중심적으로 지닌다. 이때 이들 세 가지의 개념 요소 가운데

---

7) 정예원 외(2021, 118)은 서울시에 중국어 사용 인구와 비중국어 사용 인구의 공간 분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중국어 사용 인구의 공간적 분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향후 특정 지역에서 다양한 국적의 언어 간 관계를 살피는 논의가 유의미함을 보여준다.

8) 언어 경관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지만, 다문화 및 다중언어사회의 개인이 갖는 다양한 언어적 경험에 대하여 신동일 외에서는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를 주목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혼재된 언어'라는 뜻의 링구아 프랑카는 현 시대의 언어 현상을 잘 반영한 용어라고 하겠다. 곧 직장이든 학교든 소속된 곳에서 다양한 개인들의 모어, 제2언어, 지역 방언, 기타 정체불명의 혼합 언어에 노출되면서 접촉 언어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신동일 외 2017, 1).

특히 '다언어사용 현상'은 언어 경관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하는 근원적 현상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언어 경관이 지닌 경관의 공공성이나 문어 중심의 특징은 언어 경관의 결과적 특징인데 반해, 다언어사용 현상은 언어 경관의 구성적 특징인 것이다.[9] 조태린(2015, 30)에서도 강조하였듯이, 다언어사용은 언어 경관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언어문화 현상인 것이다. 이는 다언어 사회로의 이행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난 횡단언어 양상으로 언어 경관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신동일 외 2017, 33).

더욱이 국어교육에서도 언어 경관의 세 가지 개념 요소 가운데 다언어사용 현상은 국어교육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광맥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다언어사용 현상이 다문화 사회의 언어 사용을 비롯하여 언어의 복합양식성, 그리고 언어와 힘의 관계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언어, 복합양식성, 언어와 힘의 관계 등은 각각 국어교육에서 언어 문화(culture), 언어 양식(mode), 언어 이념(ideology)의 테제와 긴밀히 연결되며 국어교육적 내용으로 구성될 여지가 상당하다. 일련의 논의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언어 경관의 개념과 국어교육적 관련성을 다음 〈표 1〉과 같이 나타내고자 한다.

〈표 1〉 언어 경관의 개념과 국어교육적 관련성

언어 경관의 개념		언어 경관 개념의 국어교육적 관련성
요소	의미	
경관의 공공성	특정 지역의 경관을 구성하는, 표현된 언어 자원	◦ 실제적(authentic) 언어 자료
문어 중심	언어 경관에 사용된 문자 언어, 시각 언어, 음성 언어	◦ 언어의 양식과 매체 언어의 특징
다언어사용 현상	다양한 문화와 양식의 언어 사용 양상과 언어 표현에 내포된 힘의 관계	◦ 언어의 다양성과 복합양식성 ◦ 다문화 사회의 언어 특징 ◦ 언어 접촉과 힘의 관계

9) 언어 경관의 세 가지 개념 요소 가운데 경관의 공공성은 '사회적 측면'을, 문어 중심은 '언어적 측면'을 나타내며, 다언어사용 현상은 '사회언어적 특징'을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다. 언어 경관에서 다언어사용 현상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듯 언어와 사회의 학제 간 연구로서 언어 경관이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문화적 맥락을 강조하는 국어교육에서도 언어 경관의 다언어사용 현상을 주목하는 일은 어쩌면 당연하다.

위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연구에서는 언어 경관에 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경관의 공공성, 문어 중심, 다언어사용 현상'이라는 언어 경관의 세 개념 요소를 세분화해 보았다. 언어 경관에 대한 연구는 경관의 관점에서 '특정 지역의 경관을 구성하는 모든 표현된 언어'를 자원으로 삼고, 구체적으로 '문자 언어, 시각 언어, 음성 언어'를 대상으로 상정한다. 시의적으로는 다언어 사용 현상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언어의 모습'을 드러내고 특히 '다양한 언어의 사용 양상이 내포한 힘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다언어사용 현상으로서의 언어 경관은 국어교육적으로 언어 문화, 언어 양식, 그리고 언어 이념에 관한 교육 내용으로 적용될 수 있다. 국어교육에서 사회언어학을 기반으로 구성된 언어의 다양성에 관한 교육 내용이나 다문화 언어 사용에 관한 교육 내용과 관련이 깊다. 또한 언어 경관에 쓰인 언어의 복합양식성(multimodality)을 이해하고, 학습자가 직접 언어 경관을 수용하고 생산하며, 보다 타당한 언어 경관의 사용에 대해 인식(aware)하는 차원을 포함한다. 이는 언어 경관의 다언어 사용이 언어의 관계적 특성이 보이는 힘의 관계와 내포된 이념성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국어교육에서 언어 경관은 학습자가 언어의 가치, 이념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효성 있게 실천할 수 있는 방향성을 열어줄 것이다.

Ⅲ. 언어 경관과 관련된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검토

이 장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언어 경관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여 언어 경관과 국어교육 내용의 접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의 〈표 1〉에서 살펴본 언어 경관의 개념 가운데 특히 다언어사용 현상에 집중하여 국어교육 하위 영역과의 연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 다음, 구체적인 성취기준을 찾아보기로 한다.

㉮ 언어의 다양성과 복합양식성: 언어와 매체
㉯ 다문화 사회의 언어 특징: 화법과 작문
㉰ 언어 접촉과 힘의 관계: 언어와 매체, 독서

㉮ 언어의 다양성은 사회언어학적 변인(sociolinguistic variation), 즉 성별, 나이, 계층, 직업 등에 따른 언어 양상에 관한 내용이므로 문법(언어) 영역에서, ㉮ 언어의

복합양식성은 매체 언어의 기본 특성에 해당하므로 매체 관련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문화 사회의 언어 특징은 공동체의 언어 생활과 관련하여 국어 활동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특히 화법과 작문 등의 언어 표현에 대한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언어 접촉과 힘의 관계는 언어 사용의 이면적 의미나 텍스트를 통해 사회적 의미를 읽어내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언어와 매체 및 독서 과목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다음 〈표 2〉와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한다.

〈표 2〉 언어 경관 관련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추출

	성취기준	주요 내용
㉮	[12언매03-04] 매체 언어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향유한다.	매체 언어의 표현, 이해, 향유
	[12언매04-03] 현대 사회에서 언어와 매체 언어의 가치를 이해하고 언어문화와 매체 문화의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매체 언어의 가치, 매체 문화의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
	[12언매02-09] 다양한 사회에서의 국어 자료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국어 자료를 생산한다.[10]	지역, 세대, 성별, 계층, 문화 차이
㉯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 등을 비판하며 읽는다.	필자의 숨겨진 의도, 사회·문화적 이념, 비판적 읽기
㉰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 등을 비판하며 읽는다.	필자의 숨겨진 의도, 사회·문화적 이념, 비판적 읽기
	[12언매03-06] 매체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한다.	매체 문화의 비판적 이해

10) 후술하겠지만 [12언매02-09]는 문화적 변인에 따른 언어 사용의 특징을 다룬다는 점에서 ㉯ 다문화사회의 언어 특징과도 연관된다.

위 〈표 2〉는 언어 경관과 관련된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그 주요 내용을 파악한 것이다.[11] 각 성취기준이 지닌 국어교육적 의미를 바탕으로 언어 경관의 관련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우선 ㉮에서 '언어의 복합양식성'의 경우, 매체 언어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과 관련된 [12언매03-04]에서 언어 경관과의 접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이 성취기준이 매체 언어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소통 활동과, 매체 언어를 지속적으로 즐기는 향유의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 경관은 그 자체로서 복합양식 텍스트의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학습자가 언어 경관을 소통의 질료로 삼을 수 있다. 특히 매체 언어의 표현과 이해는 학습자의 창의성과 심미성을 강조하는바, 새로운 형태의 언어 표현과 경관의 아름다움을 지닌 언어 경관이 직접 관련된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12언매04-03]의 경우 [12언매03-04]와 대응되는 '태도' 관련 성취기준으로, 매체 언어의 가치와 매체 문화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언어 경관과 관련된 내용 요소로 꼽을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언어 경관에 관심을 기울이고 언어 경관을 중요한 매체 문화의 하나로 여기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면 '복합양식 텍스트의 수용, 생산, 태도'의 성취기준은 언어 경관이 단순히 활용되는 차원을 넘어서 언어 경관 자체가 복합양식 텍스트 소통과 소통 과정의 태도에 관한 교육 내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12]

한편 ㉮에서 언어의 다양성'은 문법 영역에서 사회언어학을 기반에 둔 성취기준인 [12언매02-09]와 관련이 깊다. 이 성취기준은 지역의 차이, 세대나 성별 또는 계층의 차이, 문화적인 차이 등에 따라 언어 사용 양상이 다름을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교육부 2015, 112). 지역, 세대, 성별, 계층 등은 사회언어학적 변인에 해당되는데, 문법 영역은 사회언어학적 변인을 주로 어휘나 담화의 교육 내용에서 실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언어 경관은 어휘나 담화가 담긴 국어 자료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가 언어 경관을 활용하여 사회언어학적 변인을 탐구할 수 있는 교육이 실천될 수 있다.

㉯ '다문화 사회의 언어 특징'의 경우 언어 경관과 관련해서는 [12화작04-03] 및 [12언매

11) 여기에서는 국어교육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12) 이와 관련하여 옥현진 외(2017, 39)에서는 동일한 텍스트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어떤 기호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에 따라 의미의 전달 양상이 상이해진다고 하였다. 언어 경관의 다기호적, 다언어적 특성은 그 자체로서 새로운 복합양식 교육 내용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02-09]를 활용할 수 있다. [12언매02-09]는 위에서 살펴본 사회언어학적 변인 가운데 '문화적인 차이'에서 다문화 교육과 관련이 있다. [12화작04-03]은 '언어 공동체의 담화 및 작문 관습'과 관련하여 다문화 언어문화에 대한 구어 및 문어 표현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 교육 내용으로 적용 가능하다. 이들 성취기준들은 언어 경관에 나타난 문화적 차이를 탐구하거나 표현된 언어의 공동체 관습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언어 경관이 대상 국어 자료로서 활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언어 경관에 표현된 모국어와 외국어의 병기 현상 등을 다문화 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교수-학습이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 '언어 접촉과 힘의 관계'는 다양한 언어가 서로 마주하여 새로이 형성되는 의미가 모종의 의도성이나 이념을 드러낸다는 힘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12독서02-03], [12언매03-06]에서 언어 경관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12독서02-03]은 필자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읽기, 글을 읽고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기 등에서, [12언매03-06]은 매체 문화에 대한 비판적 이해에서 그 관련성이 구체화되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비판적 이해'를 중심 내용 요소로 삼고 있다. 비판적 이해는 텍스트를 통찰하는 사고 과정으로, 텍스트에 표현된 언어의 이면적 의미를 분석하고, 텍스트가 소통되는 맥락을 면밀히 고찰하여, 궁극적으로 텍스트가 배태하는 세계를 인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Fairclough 1992, 92). 비판적 이해의 사고 과정에서 언어 경관은 그 자체로서 언어 접촉과 힘의 관계를 담고 있는 텍스트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언어 경관은 비판적 이해에 관한 성취기준의 중요 교육 내용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언어 경관과 관련된 2015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관련 내용 요소를 종합하면, 첫째 언어 경관은 활용 가능한 국어 자료의 한 종류로서 기존의 관련 성취기준에 실제적 언어 자료로 기능하며, 둘째 언어 경관은 복합양식 텍스트 및 비판적 이해의 중요 교육 내용으로 자리매김한다. 곧 언어 경관은 '첫째'와 관련하여 '국어 규범', '사회언어학적 변인에 따른 어휘와 담화', '다문화 국어교육의 자료' 등의 교육에서 실제적 언어 자료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둘째'의 경우 '복합양식 텍스트의 소통', '텍스트의 비판적 이해'를 실질적으로 추동하는 교육 내용을 담지한 교육의 질료로 적용된다. 이는 '첫째'와 달리 언어 경관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함유하고 있는 실제적 언어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복합양식 텍스트의 새로운 유형으로서 문자 언어와 시각 언어 및 음성 언어가 혼재된 언어 경관이 교육 내용으로 제시되고, 언어 경관에 숨은 의도와 언어 경관이 발현하는 사회적 이념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교육

내용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언어 경관이 '활용'과 '내용'으로서 국어교육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국어교육적 활용으로서의 언어 경관'은 기존의 국어교육 성취기준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언어 경관이 지닌 실제성은 교육 현장에서 해당 성취기준의 교수-학습을 위한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어교육 내용으로서의 언어 경관'은 국어교육에서 시의적으로 강조되는 '비판적 언어인식 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교육 내용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언어 경관이 언어의 공공성을 비롯하여 횡단 언어의 국어교육적 적용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서 구성 가능한 것이다.

Ⅳ. 국어교육에서 언어 경관을 적용한 내용 요소 제안

이제 언어 경관을 적용하여 국어교육의 내용 요소를 구안해 보도록 하자. 언어 경관을 국어교육의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은 위에서 살핀 국어교육적 활용이 아닌 국어교육 내용으로서의 언어 경관에 해당하는 내용을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앞의 Ⅱ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언어 경관이 국어 자료의 위상을 넘어서 국어교육 내용을 보다 실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언어 자원이기 때문이다.

언어 경관의 국어교육적 내용화, 즉 '국어교육 내용으로서의 언어 경관'은 크게 '복합양식 텍스트'와 '언어 접촉과 힘의 관계'으로 범주화된다. 복합양식 텍스트는 다언어사회의 언어 경관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 및 향유의 내용 요소를, 언어 접촉과 힘의 관계는 지역, 세대, 성별, 계층, 그리고 다문화 언어 사용에서 이면적 의미나 이념성을 내용 요소로 지닌다. 이와 같은 각 범주의 내용 요소에 대하여 이 연구는 언어 경관의 개념과 특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국어교육적으로 개념화한다.

- ◦ 언어 경관의 복합양식성
- ◦ 언어 경관의 타당성

'언어 경관의 복합양식성'은 복합양식 텍스트의 한 유형으로서 언어 경관을 상정하고 복합양식 텍스트의 이해와 표현, 그리고 향유에 언어 경관의 특성을 교육하는 내용이다. 언어 경관이 지닌 문자 언어, 시각 언어, 음성 언어의 복합양식성이 공공의 경관을 이루는

텍스트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학습하는 데 집중한다. Van Leeuwen(2014, 288)에서 언급한 복합양식 담화분석(multimodal discourse analysis)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언어 경관은 다양한 기호 자원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언어문화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 대상 텍스트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언어 경관의 타당성'은 언어 경관에 사용된 언어의 타당성을 교육하는 내용이다. 곧 언어 경관에서 언어 사용의 타당성을 탐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언어 사용의 타당성은 Ivanić(1990, 126)의 언어에 대한 관점인 정확성, 적절성, 타당성에 따른 것으로, 언어 경관에 사용된 언어가 해당 지역의 특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형성하는지, 더 나아가 해당 지역의 이념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언어에 내포된 힘의 관계는 언어의 타당성에 대한 탐구와 직결된다.

먼저 '언어 경관의 복합양식성'의 국어교육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국어과 교육과정 항목을 고려하여 언어 경관 적용의 내용 요소를 제시하면 다음 〈표 3〉와 같다.

〈표 3〉 '언어 경관의 복합양식성'에 관한 국어교육 내용 구성

내용 범주	현행 교육과정 항목	언어 경관 적용의 내용 요소
언어 경관의 복합양식성	· 매체 언어의 이해	언어와 기호의 관계 이해
		국어와 다른 언어의 관계 이해
	· 매체의 가치와 매체 문화 향유	다양한 언어와 기호의 혼용에 따른 새로운 언어문화 향유

위 〈표 3〉에 대하여 언어 경관 적용의 내용 요소를 기준으로 언어 경관의 복합양식성에 관한 국어교육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언어와 기호의 관계 이해'는 언어 경관이 문자 언어를 비롯하여 시각 언어 및 음성 언어가 혼재되어 쓰이며, 더 나아가 픽토그램(pictogram)이나 기호 문자와 같은 다양한 기호 자원(semiotic resource)을 하나의 언어 경관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강혜선(2019, 5)는 언어 경관을 공공 표지, 민간 표지, 상업 광고, 포스터 등에 나타난 문자 언어와 그림문자(픽토그램)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양민호•김준환(2021b, 487)은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마저 언어 경관의 대상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김정헌(2021, 194)는 간판과 게시판의 언어 경관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시각화, 미각화 등 감각을 통한 이미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한 바 있다.

이때 언어와 기호의 관계 이해는, 픽토그램이나 유니버셜 디자인의 기호 자체가 아닌 그들에 사용된 언어와 언어 및 기호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언어 경관에 쓰인 언어와 기호가 갖는 관계에 의해 어떠한 '의미'가 형성되는지를 학습하는 것이 복합양식성 교육의 지향점이다. 이를 복합양식 문식성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현선(2014, 67)에서는 복합양식 문식성이란 새로운 문식성이라기보다는 문식성 자체가 복합양식적 특성을 지니는 것이라고 하였다. 언어 경관 또한 그 자체로서 내재한 복합양식적 특징을 지니며, 이는 언어와 기호가 한데 어우러져 발현하는 다양한 관계성을 학습자가 탐구하는 일이 중요함을 암시한다. 물론 언어와 기호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기존의 매체 언어의 심미적 가치를 파악하는 것에 수렴될 수 있겠지만, 언어 경관은 본연적으로 정보적 기능과 상징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복합양식성의 특성을 본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교육 자료이자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13]

둘째, '국어와 다른 언어의 관계 이해'는 언어 경관이 다언어 사용의 특징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따른 내용 요소이다. 이는 언어 경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간판 언어를 대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다. 그것은 현대 사회의 간판 언어가 국어와 다른 언어가 혼용된 형태를 자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자호(2019, 141)에서는 대학 주변의 음식점 간판에서 '스시ぼの(보노)', '배고프麵(면)' 등과 같이 한국어와 일본어가 혼용된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국어와 일본어가 혼용된 표기가 일본어 혹은 한국어 단일어로만 표기된 것과 다른 효과를 낳는다는 점과 대학 주변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이 세련되었다고 인식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언어의 표기 양상과 관련하여 강혜선(2019, 14)는 Backhaus(2007, 91)에 의거하여 언어 경관에 사용된 언어 표기의 방법을 '동음어, 혼합, 다중어, 단일어'로 구분하고 있다. 제주의 실제 간판 언어를 예로 들며, '멀티샵 杂货店'은 동음어 표기를, '간또 오뎅Bar'는 혼합 표기를, '팡 gallery'는 다중어 표기를, 그리고 'brill-liant'는 단일어 표기의 언어 경관 사례에 해당한다(강혜선 2019, 15-17). 이러한 언어 표기의 다언어 사용 범주는 언어 경관의 복합양식성에 적용하여 학습자가 다언어 표기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14]

---

13) 언어와 기호의 관계와 관련하여 O'Halloran(2011, 122)는 복합양식 텍스트 분석의 출발점이 기호 자원의 분석이며, 이는 곧 해당 텍스트를 구성하는 언어와 기호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관계에 의해 구성된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지현숙(2019, 436)에 제시된 오른쪽과 같은 복합 쇼핑몰의 언어 경관은 강아지의 픽토그램과 견주의 그림이 영어 및 국어 설명과 어우러져 이용객들에게 친근한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언어와 기호의 혼용에 따른 새로운 언어문화 향유'는 앞서 살펴본 '첫째'와 '둘째'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함양할 것으로 기대되는 태도 관련 내용이다. 곧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언어 경관에 사용된 픽토그램이나 유니버셜 디자인을 국어와 함께 이해하고, 국어와 혼용된 다른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곧 새로운 언어의 모습이 지금, 여기를 지배하고 미래, 거기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과정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지현숙(2019, 423)은 언어 경관이 각종의 횡단언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새로운 언어 환경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렇게 보면 학습자가 언어 경관의 복합양식성을 통해 함양할 것으로 기대되는 소위 '새로운 언어문화'에 대한 향유는 언어에 대한 기존의 틀을 넘어서 다양한 기호 자원의 혼용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기능함을 유연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정의적 교육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고 하겠다. 곧 새로운 언어 형태를 규범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언어문화로서 수용하고 이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미를 지니는 내용 요소이다.[15]

다음으로 '언어 경관의 타당성'의 국어교육 내용을 다음 〈표 4〉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표 4〉 '언어 경관의 타당성'에 관한 국어교육 내용 구성

내용 범주	현행 교육과정 항목	언어 경관 적용의 내용 요소
언어 경관의 타당성	· 필자의 숨겨진 의도 및 사회문화적 이념의 비판적 읽기	실재 및 가상 공간의 언어 경관에서 어휘 사용의 타당성 탐구
	· 매체 문화의 비판적 이해	

14) 다만 '국어와 다른 언어의 관계'가 언어의 양식(mode)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양식(mode)에 대한 국어교육적 개념을 확충해 나가야겠지만, 이것이 다언어 표기의 현상으로 볼 경우에는 국어와 다른 언어가 맺는 독특한 기호적 의미를 복합양식성에서 충분히 다룰 수도 있다고 본다. 다양한 언어 및 기호를 포함하는 양식(mode)에 대한 후속 논의를 기약한다.

15) 이와 관련하여 최경봉(2021, 242)에서는 다원화 상황에서는 같은 한국어를 쓰더라도 언제든 이해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전제하고 그 차이를 중재하는 차원에서 규범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언어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일종의 공동 영역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근대의 획일화된 언어관이 아닌 세계화에 따른 다언어 사용의 상황에서 복합양식성을 지닌 언어 경관의 경우 이러한 관점이 유효하다고 하겠다.

‘언어 경관의 타당성’은 위 표의 현행 교육과정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 사회문화적 이념 등 국어교육에서 꾸준히 강조해 온 비판적 이해에 관한 교육 내용 요소를 수렴한다. 이러한 점에서 언어 경관은 적용의 내용 요소는 기존 읽기나 매체 관련 내용을 포섭하되, 특히 ‘실재 및 가상 공간’과 ‘어휘 사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육 내용의 구성이 가능하다.

실재 및 가상 공간을 강조한 것은 언어 경관이 ‘공간’의 개념을 근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간판이나 도로 표지판과 같은 실재 공간과 더불어 최근에는 인터넷과 같은 가상 공간에서 광고 문구,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쓰인 안내 문구 등을 포함한다.[16] 그리고 어휘 사용에 주목하는 것은 언어 경관이 압축적인 언어 표현으로 중심 어휘를 표출하는 형식으로 게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재 공간의 간판 언어나 표지판, 건물의 부서명과 같은 안내판 등은 어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가상 공간의 경우 가령 광고 언어와 같은 언어 경관은 이러한 어휘 중심의 표현 방식이 극대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가상 공간이 화면으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보다 제한적인 공간적 속성을 지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언어 경관의 타당성은 국어교육에서 논의되고 있는 ‘타당한 어휘 사용 교육’과 긴밀히 관련된다. 타당한 어휘 사용 교육은 어휘 속에 반영된 사회문화의 모습을 탐구하는 어휘 교육의 내용 범주이다(구본관 외 2014, 94). 쉽게 말해서 ‘어휘를 통해 세상을 읽는’ 교육을 지향하며, 학습자가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거나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용된 어휘에 어떠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어휘 사용이 특정한 사회문화적 이념을 내포하지는 않는지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이는 신명선(2009, 20)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태에 대한 해석의 방향이 개념화의 방향을 결정하고, 개념화의 결과가 어휘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어휘 사용 전략에 바탕을 둔다. 언어 경관이 어휘를 중심으로, ‘특정 지역의 언어 접촉에 따른 이념성’이 드러나는 텍스트라는

16)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언어 경관 분석은 양민호·김준환(2021b)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양민호·김준환(2021b, 488-489)에서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다언어화 항목, 정보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표기 정보 가령 직관적 아이콘 사용 여부를 언어 경관의 중요 연구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가상 공간의 언어 경관은 시의적으로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 플랫폼에서도 큰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신유리(2021, 250)에서는 의사소통 기술 발전이 의사소통 방식과 활동을 추동한다는 Fairclough(2003)을 원용하여 메타버스 플랫폼은 이전 미디어와 구분되는 담화 양상을 지녔다고 하면서, 〈제페토〉 메타버스에서 사용자 정체성을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 논의한 바 있다. 메타버스의 발전은 언어 경관의 신 미디어화를 이끌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가상 공간의 언어 경관 논의는 비판적 이해와 관련하여 향후 중요한 연구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사실은(신동일 외 2017, 163),[17] 학습자가 언어 경관을 통해 언어 경관 게시자의 어휘 사용 전략을 유추하고, 언어 경관이 형성하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이념적 갈등을 파악하도록 하는 교육 내용을 구성하도록 유도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휘 사용의 타당성 탐구 활동의 세 단계인 '어휘 개념화 파악 활동', '어휘 비교 활동', '어휘 바꾸기 활동' 등을 토대로(신명선 2020, 269-274), 언어 경관의 타당성 탐구의 내용 요소를 실제 교수-학습으로 실현할 수 있다. 예컨대, 안산시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 지원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인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라는 실재 언어 경관은 '외국인'이라는 어휘의 타당성을 탐구할 수 있다. 왜 안산시는 '다문화'에서 '외국인'이라는 어휘를 선택했을까, 외국인과 다문화의 어휘 차이가 어떠한 이념적 차이를 낳을까, 두 어휘의 차이가 안산시의 지역적 정책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 등의 어휘 타당성 탐구 활동을 실현할 수 있다.[18]

Ⅴ. 연구의 요약과 남은 과제

지금까지 언어 경관을 이론적으로 살피고 언어 경관의 국어교육적 내용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언어 경관의 연구 영역을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국어교육적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언어 경관은 경관의 공공성에 따른 문자 언어, 시각 언어 및 음성 언어를 가리키며 특히 다언어사용 현상을 특징적으로 갖는다. 이러한 언어 경관은 국어교육적으로 실제적 국어 자료로서 언어 표현의 특성을 포함하며 복합양식 텍스트와 언어의

17) 일반적으로 권력이 있는 집단이나 개인은 특정 언어에 대한 중요성, 권력, 우월성, 과학성 등의 가치를 눈에 띄는 방식으로, 좀 더 상징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부과된 이데올로기의 지배에 반항하며 자신들의 무시된 정체성을 또 다른 언어적 표지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신동일 외 2017, 163).

18) 참고로 안산시는 2019년 1월 기존 다문화지원본부에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로 개편하였다. 결혼이주민 등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외국인 거주민의 포괄적 지원을 취지로 해당 언어 경관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명명은 다문화 가정이 외국인에 종속되는 인상을 주어, 다문화와 상호성을 강조하는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책 기조에 맞지 않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이러한 비판적 이해가 바로 언어 경관의 타당성에서 추구하는 교수-학습의 방향성이라고 하겠다. 더욱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학습자라면, 지현숙(2019, 423)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사소통 참여자의 정체성과 권리, 힘 등에 관심을 갖는 횡단 언어와 언어 경관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는 국어교육에서 강조하는 삶으로서의 교육에 입각할 때, 언어 경관이 '지역 기반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하겠다.

다양성, 그리고 언어 접촉과 힘의 관계에 관한 내용과 관련을 이룬다. 이를 바탕으로 언어 경관과 관련된 국어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인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통해 파악하였다. 그 결과 국어 규범, 언어의 다양성은 기존의 성취기준의 실행을 위한 '국어교육적 활용으로서의 언어 경관'과, 복합양식 텍스트, 언어 접촉과 힘의 관계는 성취기준의 구성을 추동하는 '국어교육 내용으로서의 언어 경관'으로 범주화하였다. 이 연구는 국어교육 내용으로서의 언어 경관에 집중하여, '언어 경관의 복합양식성'과 '언어 경관의 타당성'으로 내용 범주를 설정하고 각 범주별로 언어 경관 적용의 내용 요소를 제안하였다.

이번 논의는 다언어 사회의 주목 받는 언어 현상인 언어 경관의 의미를 고찰하고 국어교육적 적용 방향을 강구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아직 국어교육에서 언어 경관의 연구는 출발점 단계이지만 차기 교육과정(2022년 개정)에서 개설될 '언어생활 탐구' 과목의 성격을 보건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 251), 학습자의 지역적 실생활 언어 자료인 언어 경관은 상당한 국어교육적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본다. 이는 언어 경관이 '국어'의 양식에 대한 다변화와 새로운 언어문화성을 시의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다언어사용 현상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언어 경관은 국어교육 대상 텍스트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연구는 언어 경관과 국어교육의 접점에 대한 논의가 보다 깊이 있게 전개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언어 경관의 국어교육적 내용화에 집중하다보니, 자연스레 국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에 둘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국어교육에서 언어 경관 연구와 관련이 있는 사회언어학, 국어 의식론 등에 대한 담론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지 못했다. 또한 언어 경관을 적용하여 제안한 국어교육 내용이 기존의 유관 내용과 어떠한 차별성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도 있었다. 곧 국어교육 현장에서의 언어 경관 적용의 교육 내용을 수행적 교수-학습으로 환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직시하며, 이 연구는 아래 두 가지의 과제를 끝으로 부족한 논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실제적 국어 자료로서 언어 경관의 자료 수집과 체계화에 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본고에서 제안한 활용 및 내용으로서의 언어 경관이 국어교육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초 조사 연구로서 언어 경관에 대한 국어 자료화가 필수적이다. 그간 이루어졌던 특정 지역의 언어 경관에 대한 언어·기호적 분석 자료로는 부족하다. 언어 경관의 다언어 사용 양상, 언어 경관과 언어적 힘의 관계, 온라인 언어 경관의 범주와 특징 등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언어 경관이 마치 국어 규범의 정확성을 파악하는 차원과 같은 국어 자료가 아니라, 언어의 창의성을 경험하고 타당한 어휘 사용을 탐구하는 장으로

언어 경관 연구가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언어의 공공성에 대한 국어교육적 연구와 관련하여, 언어 경관을 대상으로 국어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수행적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국어교육에서 언어의 공공성은 국어 규범이나 정책의 문제에서부터 다언어 사회의 국어교육 방향성을 강구하는 중요한 이슈에 해당한다. 후자와 관련하여 그간 국어교육이 모국어로서의 국어에 주목해 왔다면 앞으로는 세계어로서의 국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횡단언어 현상으로서 국어는 더 이상 모국어 화자의 전유물이 아닌바, 국어교육 또한 그 대상으로서의 언어가 지닌 공공성을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언어 경관은 일련의 공공 언어에 대한 국어교육적 연구에서 실천적 연구 자료를 제공하여 변화하는 사회의 국어교육에 대한 면면을 강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선. 2019. 언어 경관 연구: 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24(2), 1-25.
- 교육부. 2015. 국어과 교육과정(제2015-74호[별책 5]).
- 구본관 외. 2014. 어휘교육론. 사회평론.
- 국립국어원. 2006. 언어경관조성 장기계획연구.
- 김정헌. 2021. 언어경관에 보이는 화용에 관한 연구: 간판과 게시판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55, 191-205.
- 신동일 외. 2017. 접촉의 언어학: 다중언어사회의 교육과 정책. 커뮤니케이션북스.
- 신명선. 2009. 국어 표현과정에서 작용하는 어휘 사용 기제와 그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29, 91-131.
- 신명선. 2020. '어휘 사용의 타당성 탐구 활동'의 교육 내용 설계 방향. 교육문화연구 26(1), 261-288.
- 신유리. 2021. 메타버스 담화에서 참여자의 정체성 연구: 디지털 원주민 세대가 사용하는 〈제페토〉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76, 249-278.
- 양민호. 2020. 한일 언어경관 연구의 新패러다임에 관한 고찰: 역사사회언어학적 방법과 관련 사례를 통하여. 일본학 51, 61-81.
- 양민호·김준환. 2021a. 해양관광도시의 도로표지 언어경관 연구: 부산과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융복합지식학회논문지 9(4), 75-86.
- 양민호·김준환. 2021b.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언어경관에 관한 연구.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기술논문지 10(5), 485-496.
- 옥현진 외. 2017. 디지털 리터러시 표현 영역의 인지적 특성 탐색. 작문 연구 33, 31-63.
- 이자호. 2019. 대학 주변의 언어경관: 韓·日語를 혼용한 음식점명을 중심으로. 日本語學研究 66, 135-148.
- 정예원 외. 2021. 언어경관에 반영된 중국어 사용 인구의 공간적 분리: 서울시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56(1), 113-121.
- 정현선. 2014. 복합양식 문식성 교육의 의의와 방법. 우리말교육현장연구 8(2), 61-93.
- 조태린. 2015. 언어 경관에 대한 언어 정책적 접근: 다언어사용 정책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학 40, 27-50.
- 지현숙. 2019. 다중언어 시대 한국의 횡단언어 경관에 관한 고찰. 국어 교육 165, 419-442.
- 최경봉. 2021. 국어 환경의 변화와 규범 정책의 가능성. 우리어문연구 70, 221-252.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연구보고 CRC 2022-2).
- Backhaus, P. (ed.). 2007. Linguistic landscape: a comparative study of urban multilingualism in Tokyo. Clevedon-Buffalo-Toronto: Multilingual Matters Ltd.
- Fairclough, N. 1992. Discourse and social change. Cambridge: Polity Press.
- Fairclough, N. 2003. Analysing discourse: textual analysis for social research. London: Routledge.
- Fill, A. 1993. Ökolinguistik: Eine Einführung, 박육현 역. 1999. 생태언어학. 한한국문화사.
- Haugen, E. 1972. The ecology of language. The Ecolinguistics reader: language, ecology and environment, 57-66.
- Ivanič, R. 1990. Critical language awareness in action. In R. Carter (Ed.), Knowledge about language and the curriculum: The LINC reader, London: Hodder & Stoughton.
- Landry, R., & Bourhis, R. 1997. Linguistic landscape and ethnolinguistic vitality: an empirical study.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16(1), 23-49.
- O'Halloran, K. 2011. Multimodal discourse analysis. In K. Hyland & B. Paltridge (Eds.), Bloomsbury companion to discourse analysis, London: Bloomsbury.
- Van Leeuwen, T. 2014.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multimodality. In C. Hart & P. Cap(Eds.), Contemporary critical discourse studies, London: Bloomsbury.

● 투고일: 2022.07.29. ● 심사일: 2022.07.30. ● 게재확정일: 2022.08.23.

| Abstract |

Linguistic Landscape in Multilinguistic Society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al Contents Construction

Kim Kyoohoon (Daeg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linguistic landscape which is peculiar language phenomena in the multilinguistic society, and to construct Korean language educational contents.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tries to extract conceptual elements of the linguistic landscape by documentary research, and tries to construct contents element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considering a relation of Korean education by curriculum research. As a result, two ways for Korean subject curriculum application of the linguistic landscape are established, "Linguistic landscape in Korean language educational use" and "Linguistic landscape as Korean language educational contents". And as the contents category of the linguistic landscape as Korean language educational contents, "Multimodality of the linguistic landscape" and "Validity of the linguistic landscape" are set up, and concrete contents elements in each category are suggested. This study has a meaning to design the practical educational contents through the linguistic landscape in an era of diversity of language modes and language culture.

〈Key words〉 Linguistic landscape, Public language, Multilingualism, Authentic Korean materials, Multimodal text, Validity of language use